

자선과 사회공헌

백영국 한국예술회관 이사장

크리스마스 캐롤과 주베르지시냇가의 종노리가 들리는 계절이 되면 좁고 싸고픈 세운
을 마지않아 리는 불우이웃에게 나뉘는 소망을 전 사람간의 머뭇거림이 연륜을 장악한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쾌척하고 있는 30억, 70억, 200억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집결하는 '사랑의
온도계'의 폭발력을 향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에 입지근
이 복지회법방문, 노인복지회관과 동계노인회, 노숙자쉼기 등의 봉사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무성하다.

올해는 추위로 기업에 지원금과 성금의 활동이 활발한 것 같다. 이러한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 비해 기부액이 증가하면서 지원금과 성금의 열기로 더해진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향이 우리사회를 호소하게 하고 있다는 뜻도 풍부하다.

이러한 추위로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수 많은 큰 기업,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단동배우기 등을 위한 전국구적 노력과 나누기,
노숙자들에게 겨울옷 나누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로 주춧돌을 쌓아나가는 기풍이 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생각된다. 동양전역에 전지각이 펼쳐진 사회, 어느새 성탄절의
먹거리상자를 직각으로 돌려 함께 먹어야 하는 그곳을 방문해야 할 때이다. 그 중 한사람은
먹거리에 이르기 위한 산모가 먹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거른 채 이기이게 된 것을 물리고
있었다. 그 작은 산모를 위해서 그 산모에게 어떠한 것이 있을지. 그 산모의 보살은 뜻밖에도
바로 소중한 생명으로 있을지 모른다.

그로써 수없이 지는 지점으로 우리주변에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속해 있는 사람
크게는 생활상에서 많은 처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산모가 있다. 국내 사회복지단체들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보충하는 일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이다.

최근에 실시한 이러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중에 1회이상 기부행위가 있는 사람이
64.3%에 달하는 반면 평년 기부금도 5천785원이지만 지원금의 경우 1회이상 참여하는 사
람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으로 돕기 위한다는
응답이 84.9%로 압도적이다.

비록의 경우 89%의 사람이 기부금 수혜자 3.1%인 162만여를 기부하고 있으며 국민
의 1만5천이 1주일에 평균 3.6시간을 지원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선에 의한 타락과 비효율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불우한
층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가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금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기부행위를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자선(Charity)과 사회단체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한다. 자선이란 1601년
영국의 '주빈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겐 불우이나 급진적
배우나 것으로 급진적 사람에겐 상장에 필요한 생계를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나눔이다.
또한 사회공헌은 또한 이 사회와 노동자를 함께 제공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단체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희랍어의 사랑과 친목을 뜻하는 '피로스'와 인간
과 인물을 뜻하는 '안스로피스'를 조합한 것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①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분부터 다룰 것임이 분명함은 이인 분행동이 두대리구의 약한
다수에 의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각분야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 합의하고 있는 것임

최근 우리나라로 기부문화의 성장이 큰데서 수입과 자산 등의 1% 중 1%는 모두가 합법적으로
기업주에게도 이미 20%정도에 수익의 1%이후 사회공헌활동 등 위해 쓰는 1%는 법이 운영중에
있다. 더욱이 대안활동은 대안활동의 반분리임을 사회생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인 경영학과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외국에서는 비영리(합법)이 가장 중요한 인적 활동
의 하나인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 있는 사회생활자들의 건전한 실천에 기여할 것을 일컫는다.
다들 도움이, 무엇이든 하는 지원활동도 없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데서 문제를
사회에 예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제각각 갖는 기대해 본다.

자선과 사회공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되면 춥고 배고픈 세모를 맞이해야 하는 불우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편 사람들의 미담들이 언론을 장식한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쾌척하고 있는 30억, 70억, 200억 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계'의 목표액을 향한 눈금을 쑥쑥 올리고 있다는 낭보가 들린다. 그런가하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복지시설방문,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돕기, 노숙자 돕기 등의 봉사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무성하다.

올해는 유난히 기업의 자원봉사 팀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 같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작년에 비해 기부액이 많은가 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열기도 더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현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어서 안타깝지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온정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아름다운 나눔의 행렬은 기업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이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달동네 식구들을 위한 떡국꺼리와 연탄 나누기, 노숙자들에게 겨울옷 나누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주는 이와 받는 이들이 기뻐하고 있다.

오래 전의 일이 생각난다. 중량천변에 판잣집이 즐비하던 시절, 어느 해 성탄 전야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먹을거리 상자를 장만하여 그 곳을 방문했던 때이다. 그 중 한 가정에는 며칠 전에 아기를 분만한 산모가 먹을거리가 없어 끼니를 거른 채 아기에게 민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 작은 선물꾸러미가 그 산모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그 때의 보람은 뜻밖에 얻은 소중한 경험으로 잊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속해있는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지의 어려운 가정들이 산재해있다. 국가나 사회복지단체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석을 찾아 정을 나누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최근에 실시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 1회 이상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3%로서 일인당 평균 기부금은 5만 7859원이며 자원봉사의 경우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응답이 84.9%로 압도적이다.

미국의 경우 89%의 가정이 가구당 수입의 3.1%에 해당하는 1,621달러를 기부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 이상이 1주일에 평균 3.6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난에 의한 피해자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절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이웃을 돕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사후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해 기부선진국의 경우는 일상화되고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기부행위를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자선(charity)과 사회자체의 변혁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한다. 자선이란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당장에 필요한 생선을 주는 것과 같은 나눔이다. 반면 사회공헌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 자체

를 변혁하는 것이라는 데서 자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희랍어에서 사랑과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와 인간과 인류를 뜻하는 '안스로포스'를 조합한 것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박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필란트로피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 다른 점은 마음만이 아닌 행동이 뒤따라주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변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의 싹이 트면서 수입과 유산 등의 10%를 나누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가하면 기업 측에서는 이미 전경련에 수익의 1%를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쓰는 1%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시민사회운동에 기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자선에서 사회공헌의 성격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미래사회'에서 "21세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간파한 것처럼 시민사회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진다.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활동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사회 자체를 변혁하여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자선과 사회공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되면 춥고 배고픈 세모를 맞이해야 하는 불우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편 사람들의 미담들이 언론을 장식한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쾌척하고 있는 30억, 70억, 200억 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계'의 목표액을 향한 눈금을 쭉쭉 올리고 있다는 낭보가 들린다. 그런가하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돕기 등의 봉사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무성하다.

올해는 유난히 기업의 자원봉사 팀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 같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작년에 비해 기부액이 많은가 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열기도 더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현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어서 안타깝지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온정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아름다운 나눔의 행렬은 기업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이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달동네 식구들을 위한 떡국꺼리와 연탄 나누기, 노숙자들에게 겨울옷 나누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주는 이와 받는 이들이 기뻐하고 있다.

오래 전의 일이 생각난다. 중량천변에 판잣집이 즐비하던 시절, 어느 해 성탄 전야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먹거리 상자를 장만하여 그 곳을 방문했던 때이다. 그 중 한 가정에는 며칠 전에 아기를 분만한 산모가 끼니를 거른 채 아기에게 빈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 작은 선물꾸러미가 그 산모에게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때의 보람은 뜻밖에 얻은 소중한 경험으로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속해있는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지의 어려운 가정들이 산재해있다. 국가나 사회복지단체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석을 찾아 정을 나누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최근 실시한 어떤 조사는 우리 국민 중에 1회 이상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3%로서 일인당 평균 기부금은 5만 7859원이며 자원봉사의 경우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응답이 84.9%로 압도적이다.

미국의 경우 89%의 가정이 가구당 수입의 3.1%에 해당하는 1,621달러를 기부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 이상이 1주일에 평균 3.6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난에 의한 피해자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절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이웃을 돕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사후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해 기부선진국의 경우는 일상화되고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부행위는 자선(charity)과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선이란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당장에 필요한 생선을 주는 것과 같은 나눔이다. 반면 사회공헌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라는 데서 자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희랍어에서 사랑과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와 인간과 인

류를 뜻하는 '안스로포스'를 조합한 것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박애를 의미한다. 필란트로피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 다른 점은 마음만이 아닌 행동이 뒤따라주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자질을 가진 각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변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의 싹이 트면서 수입과 유산 등의 1%를 나누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가하면 이미 전경련에 수익의 1%를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기부하는 1%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시민사회운동에 기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자선에서 사회공헌의 성격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미래사회'에서 "21세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간파한 것처럼 시민사회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활동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 자체를 변혁하여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자선과 사회공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되면 춥고 배고픈 세모를 맞이해야 하는 불우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편 사람들의 미담들이 언론을 장식한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쾌척하고 있는 30억, 70억, 200억 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계'의 목표액을 향한 눈금을 쭉쭉 올리고 있다는 낭보가 들린다. 그런가하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돕기 등의 봉사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무성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작년에 비해 기부액이 많은가 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열기도 더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현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어서 안타깝다.

아름다운 나눔의 행렬은 기업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이 이어가고 있다. 달동네 식구들을 위한 떡국꺼리와 연탄 나누기, 노숙자들에게 겨울옷 나누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주는 이와 받는 이들이 기뻐하고 있다.

오래 전의 일이 생각난다. 중량천변에 판잣집이 즐비하던 시절, 어느 해 성탄 전야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먹거리 상자를 장만하여 그 곳을 방문했던 때이다. 그 중 한 가정에는 며칠 전에 아기를 분만한 산모가 끼니를 거른 채 아기에게 빈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 작은 선물꾸러미가 그 산모에게 어떠한 것이었을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속해있는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지의 어려운 가정들이 산재해있다. 국가나 사회복지단체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석을 찾아 정을 나누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최근 실시한 어떤 조사는 우리 국민 중에 1회 이상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3%로써 일인당 평균 기부금은 5만 7859원이며 자원봉사의 경우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응답이 84.9%로 압도적이다.

미국의 경우 89%의 가정이 가구당 수입의 3.1%에 해당하는 1,621달러를 기부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 이상이 1주일에 평균 3.6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난에 의한 피해자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사후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해 기부선진국의 경우는 일상화되고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부행위는 자선(charity)과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선이란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당장에 필요한 생선을 주는 것과 같은 나눔이다. 반면 사회공헌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라는 데서 자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희랍어에서 사랑과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와 인간과 인류를 뜻하는 '안스로포스'를 조합한 것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박애를 의미한다. 필란트로피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 다른 점은 마음만이 아닌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다는 데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자질을 가진 각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변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의 싹이 트면서 수입과 유산 등의 1%를 나누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가하면 이미 전경련에 수익의 1%를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기부하는 1%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시민사회운동에 기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자선에서 사회공헌의 성격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미래사회'에서 "21세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간파한 것처럼 시민사회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활동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 자체를 변혁하여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자선과 사회공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되면 춥고 배고픈 세모를 맞이해야 하는 불우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편 사람들의 미담들이 언론을 장식한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쾌척하고 있는 30억, 70억, 200억 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계'의 눈금을 쑥쑥 올리고 있다는 낭보가 들린다. 그런가하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돕기 등의 봉사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무성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작년에 비해 기부액이 많은가 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열기도 더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현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어서 안타깝다.

아름다운 나눔의 행렬은 기업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이 이어가고 있다. 달동네 식구들을 위한 떡국꺼리와 연탄 나누기, 노숙자들에게 겨울옷 나누기 등으로 주는 이와 받는 이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오래 전의 일이 생각난다. 중량천변에 판잣집이 즐비하던 시절, 성탄 전야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먹거리 상자를 장만하여 그 곳을 방문했던 때이다. 그 중 한 가정에는 며칠 전에 아기를 분만한 산모가 끼니를 거른 채 아기에게 빈 젖을 물리고 있었다. 작은 선물꾸러미가 그 산모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지의 가정들이 산재해있다. 국가나 사회복지단체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을 찾아 정을 나누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최근 실시한 어떤 조사는 우리 국민 중에 1회 이상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3%로 세 일인당 평균 기부금은 5만 7859원이며 자원봉사의 경우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응답이 84.9%로 압도적이다.

미국의 경우 89%의 가정이 가구당 수입의 3.1%에 해당하는 1,621달러를 기부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 이상이 1주일에 평균 3.6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난에 의한 피해자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사후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해 기부선진국의 경우는 일상화되고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부행위는 자선(charity)과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선이란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은 나눔이다. 반면 사회공헌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자세를 변혁하는 것이어서 자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펠란드로피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희랍어에서 사랑과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와 인간과 인류를 뜻하는 '안스로포스'를 조합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박애를 의미한다. 펠란드로피가 그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 다른 점은 마음만이 아닌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자질을 가진 각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변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

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의 싹이 트면서 수입과 유산 등의 1%를 나누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가하면 이미 전경련에 수익의 1%를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기부하는 1%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매출액의 1%만분의 일을 시민사회운동에 기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자선에서 사회공헌의 성격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미래사회'에서 "21세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간파한 바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활동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 자체를 변혁하여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